‘광주형 일자리’ 현대차 협상 이달말 매듭 총력전

적정 임금, 근로시간 등 쟁점서 이견 커…실무협의 거쳐 재협상

임금은 줄이고 일자리를 늘리는 ‘광주형 일자리’ 사업의 핵심인 현대자동차 투자협상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광주시는 이달 국회 예산 심의 전까지 협상을 타결해 내년도 국비에 사업비를 반영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18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 협상단은 16일부터 이날까지 서울 현대차 본사에서 실무자 간 협의를 했다.

협상단은 한국노총을 중심으로 한 지역 노동계와 협의를 거쳐 마련한 협상안을 토대로 현대차와 논의를 했다.

그러나 적정 임금, 근로시간 등에서 입장차가 커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대차는 당초 시와 맺은 투자 협상안이 아닌 노동계 입장이 대폭 반영된 이번 협상안에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협상단은 당분간 실무자 간 협의를 이어가며 이견을 최대한 좁히고 다시 본격적인 협상에 나설 방침이다.

시는 당초 국회 예산 심의가 끝나는 지난 15일을 현상 시한으로 보고 합의를 끌어내는 데 총력을 기울였다.

하지만 데드라인을 넘긴 만큼 이번에는 내년도 예산안의 감액 및 증액을 심사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에 맞춰 합의를 견인한다는 계획이다.

중앙 부처의 동의를 받으면 예결위에서 심사를 받는 것이 가능한 만큼 예결위 일정이 마무리되는 이번 달 말까지 타결을 매듭짓겠다는 것이다.

정부와 여야 모두 광주형 일자리에 초당적인 지원을 하기로 한 만큼 예산 심의가 마무리되는 이번 달까지 합의를 끌어낸다면 예산 반영은 어렵지 않으리라고 보고 있다.

현대차도 이미 투자 의향을 밝힌 상태여서 협상 과정에서 이견이 좁혀진다면 극적으로 협상을 타결하고 정부 예산에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수차례 협상에도 양측의 입장차만을 확인하는 데 그쳤다는 점에서 협상 타결에 부정적인 전망도 많다.

광주시 관계자는 “시, 현대차, 노동계가 얽힌 다자 협상 구조여서 서로의 입장차를 좁히는 게 쉽지는 않다”며 “실무협의를 계속해 이견을 최대한 좁히고 이번 달까지 협상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정승현 기자 jsh9668@

나주 빛가람 혁신도시 시즌2 본격화

5년간 3조9천억 투입

앞으로 5년 동안 3조9천억원을 들여 40개 사업을 추진할 ‘나주 빛가람 혁신도시 시즌2’ 사업이 본격화한다.

전남 혁신도시 지원단은 지난 7개월에 걸쳐 향후 5년 동안 추진할 3조9천억원 상당의 40개 사업을 종합정리해 국토교통부에 제출하는 등 사업을 최종 발굴·정리했다고 18일 밝혔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혁신도시에너지 특화사업 ▲정주여건 사업 ▲주변지역 상생발전 사업 ▲인재육성 사업 등이다.

또 지역 제품 우선구매제도와 대학캠퍼스 설치 특례제도 등 신도시 활성화에 필요한 개선 방안도 함께 제출했다.

전남도와 22개 시·군에서 발굴한 공공기관 지역 발전사업 30건(484억원)도 내년부터 본격 추진된다.

나주 빛가람 혁신도시 16개 공공기관을 포함해 23개 관계 기관장들은 오는 19일 한전KDN에서 이러한 내용의 사업 추진 및 발전 방안을 확정하고 사업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인플루엔자 감염 주의하세요”

광주광역시는 16일 질병관리본부가 전국에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함에 따라 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과 올바른 손씻기, 기침예절 지키기 등 개인위생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광주시는 인플루엔자 감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무료접종 대상인 생후 6개월~12세 어린이와 65세 이상 어르신은 물론 임신부, 만성질환자, 50~64세 인구 등 인플루엔자 고위험군, 건강한 청소년 및 성인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예방접종 필요성을 강조할 방침이다.

현재 어린이 무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지정의료기관에서 가능하며, 의료기관은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https://nip.cdc.go.kr)나 콜센터(1339)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더불어 어르신 무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민간의료기관 위탁사업이 15일로 종료됐지만 보건소를 통해 백신이 소진될 때까지 무료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인플루엔자 검사에서 양성이면 항바이러스제의 요양급여가 인정되며, 특히 유행주의보가 발령되면 9세 이하 소아, 임산부, 65세 이상 고령자,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 환자는 인플루엔자 검사 없이 항바이러스제 요양급여가 인정된다.

광주시는 38도 이상의 발열과 기침 또는 인후통의 인플루엔자 의심증상이 발생할 경우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신속하게 진료 받을 것을 권고했다.

/정승현 기자 jsh9668@

담양 메타세쿼이아랜드에서 ‘한 컷’ 18일 전남 담양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 13일부터 17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여행사 관계자, 여행작가, 파워 블로거 50여명을 초청해 ‘담양관광 홍보 팸투어’를 했다. 지난 16일 오후 팸투어단이 담양 메타세쿼이아 랜드를 찾아 담양의 가을 정취를 담고 있다. /전남 담양군 제공

귀농귀촌 교육수료생 전남서 현장체험

귀농 정착 과정·성공사례 몸으로 직접 경험

광주·전남 귀농운동본부와 광주제대군인지원센터의 귀농귀촌 교육프로그램 교육생들이 각각 수료식을 갖고 현장체험에 들어갔다.

이번 현장체험은 그동안 강의실에서 이론으로만 배운 귀농 정착 과정과 성공 사례 등에 대해 현장에서 직접 눈으로 보고 몸으로 체험토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광주·전남 귀농운동본부 교육 수료생은 19일까지 3일간 현장체험을 한다. 이들은 장성에서 남도표고버섯 농장 견학, 정글주애바나나농가와 백련동 편백농원 수확체험, 한마음 자연학교에서 귀농귀촌 선배와 대화의 시간을 갖는다.

또 영광에서 미르목장과 이재명 고구마 재배 농가의 성공사례를 배우고, 고양에 농장에서 보리쿠키 만들기 체험을 하며, 여민동락 복지센터장의 ‘귀농귀촌 잘하는 법’ 특강을 듣는다.

광주제대군인지원센터 교육수료생은 오는 21일 고흥 신기마을 염색체험장과 산티아고 커피농장을 방문해 유기농 유자 재배와 친환경 축산 현장을 견학한다.

전라남도는 이런 현장체험을 통해 참가자들이 전남 귀농귀촌 현장을 안내받고 귀농귀촌 지원정책을 소개받음으로써 앞으로 귀농귀촌 정착지로 전남을 결정하길 기대하고 있다.

/윤규진 기자 jin2001@

국립축산자원개발부 ‘함평 이전’ 눈앞

경쟁 지자체 없이 단독 응모…23일 최종 후보지 결정

충남 천안에 있는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성환종축장)를 전남 함평으로 옮기는 이전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이전 후보지 공모에 경쟁자 없이 함평군이 단독 신청한 데 이어, 함평군의 사업 제안서도 1차 심사를 통과해 오는 23일 이전 후보지 최종 결정만 남았다.

18일 전남도와 함평군에 따르면 지난 14일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 이전 후보지 선정 1차 심사위원회가 열렸다 심사위원회에는 심사위원 7명 전원이 참석해 함평군이 단독으로 제출한 제안서를 바탕으로 정주여건·접근성·편의성·연구적합성·방역·연계성·형평성·지자체 지원 등 6개 기본요소를 평가했다.

함평군은 필수면적 확보와 초지 조사료 연구여건, 지자체 지원계획 등에서 골고루 좋은 평가를 받아 1차 심사를 통과했다.

국립축산과학원은 선정위원회 심사위원, 발주처·주관사 관계자들과 함께 오는 20~21일 함평 이전 후보지 현장을 방문해 실사를 벌일 예정이다.

22일에는 함평군 프레젠테이션과 질의·응답 평가회를 실시하고 이후 선정위원회 회의를 거쳐 오는 23일 이전 후보지 최종 심사 결과를 발표한다.

함평군과 전남도는 경쟁 지자체가 없는 데다 함평이 조사료 재배 등에서 최적의 여건을 갖추고 있어 무난히 최종 후보지에 뽑힐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함평군 관계자는 “함평은 동물복지형 녹색 축산을 실천하고 구제역으로부터 안전한 몇 안 되는 곳”이라며 “조사료 재배에 훌륭한 여건을 갖추고 있고 가축 질병 차단 방역에도 최적지”라고 말했다.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는 충남 천안에 있으며 조사료 연구 개발을 통한 소·돼지 축종 개량 사업을 주로 수행하고 있다.

천안 지역의 급격한 도시화·산업화와 인근 지역에서 발생한 구제역 등으로 최근 이전 필요성이 지속해서 제기됐다.

전남도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전남지사로 재임할 때인 지난해부터 유치 계획을 발표하고 이전 작업을 꾸준히 벌여왔다.

함평군 예정부지는 신광면 송사리 일대 612만㎡로 천안 현 부지 418만7천㎡보다 훨씬 넓다.

전체부지의 90%가량을 조사료 연구 개발을 위한 초지로 사용한다.

이전이 결정되면 이곳에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 소속 가축개량평가과·낙농과·양돈과·초지사료과 등 4개 부서와 이곳에 근무하는 183명(정규직 91명·공무직 92명)이 옮겨온다.

종축용 젖소 300마리와 돼지 1천마리도 함께 들어온다.

전남도는 축산자원개발부가 옮겨오면 함평이 4차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스마트 축산시스템 구축의 중심지로 거듭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함평이 사료-축사-도축-가공·유통-소비까지 연계하는 새로운 축산산업의 메카가 될 것이다”며 “최종 후보지 결정까지 성실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서부권취재본부=윤규진 기자 jin2001@

새롭게 도약하는
전남도민일보가
능력있는 지역기자를 모집합니다.
강진, 고흥, 함평, 해남
전화문의 : 062)227-0000 / 010-9556-0000 (직통)
팩 스 : 062)227-0084
주 소 : 광주광역시 북구 금남로 75 (유동 33-4) 소석빌딩 5층

사무실 임대
⊙ 지하철 농성역 4번출구 옆
⊙ 화정동 776-12 3층 60평
⊙ 광주버스종합터미널
신세계백화점
금호월드 · CGV영화관 인접
⊙ 광주 새우리병원 건너편
⊙ 2층 북교당 한약방 운영중
☎ 062)362-6900

서구 치평동 중흥스카이31 상가 임대
1층 101호 코너자리
전용면적 357.72㎡(108.2평)
보증금 2억원. 월임대료 1천 100만원
108호 전용면적 84.04㎡(25.4평)
보증금 5천만원. 월임대료 250만원
☎ 062)676-0004

나주혁신도시
빛가람 중흥메가티움
상가 125호
상가 201호
전용면적 415.58㎡(125.72평)
(보증금 5천만원. 월임대료 300만원)
☎ 010-4057-7999